

脂血管疾患의 원인

고혈압과 동맥경화·연령등이 주원인

주제討論

1.발생기전과 병리
뇌졸중은 뇌혈관 고유의 병변 즉 뇌혈관의 죽상경화증, 지방초자양변성 lipohyalinosis, 염증, 아미로이드침착, 동맥박리, 기형, 동맥류성확장 및 정맥혈전증에 의하여 일어나며 심장 혹은 뇌외순환계통에서 유래한 색전이 뇌혈관을 폐쇄하여 일으키는 경우 뇌관류암의 저하나 불충분한 뇌혈류와 혈액절도의 증가에 의하거나 디지주막강의 혈관파열 또는 뇌내실 질혈관의 파열등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를 발병과정에 의하여 생긴 급성신경손상을 뇌졸중이라고 한다.

뇌졸중은 다섯 가지 임상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죽상경화혈전성뇌경색 atherothrombotic infarction △뇌내출혈 intracerebral hemorrhage △지주막하출혈 subarchnoid hemorrhage △뇌색전증 cerebral embolism sient ischemic attack 등이다.

成人病予防協会 成人病관리 범국민적인 예방계몽에 앞장서다

- ◇ 뇌혈관질환은 구미 선진국에서는 심장병, 암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사망원인이며 개발 도상국에서는 역순이 되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발생빈도는 미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약 800명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층에 서는 약 5%나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작업손실과 입원 및 재가치료에 의한 의료비 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질환이다. 이하 이들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및 위험인자들을 알아 본다.

特輯

WHO지원 워크숍 腦血管질환관리

및 △일과성뇌혈관破裂 trans-2.뇌졸중의 위험인자 뇌졸중 발증의 위험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심혈관질환 : 죽상경화혈전성뇌졸중을 일으킨 환자에서는 심방세동, 심장판막증, 심경색, 심내막염 등 기초심장질환 또는 말초혈관질환의 존재가 시사된다.

△고혈압 : 가장 중요하고도 개선 가능한 위험인자로 중증고혈압은 소혈관의 지방초자변성, 소경색 lacunar infarction, 대혈관의 죽상경화혈전병변 및 심부뇌내출혈 deep intracerebral hemorrhage 등의 원인이 되며 오래 지속된 고혈압은 미세동맥류 Charcot Bouchard Microaneurysm에 의한 심부뇌내출혈을 일으킨다.

△흡연 : 죽상경화증 및 뇌혈류감소를 일으키거나 관동맥질환에서와 같은 영향은 적다.

△가족성고지혈증 : 역시 관동맥질환에서 의의가 보다 적다.

△인종 : 백인과 아세아인에서 경동맥 및 중뇌동맥병변의 발생빈도가 6~7:1로 서로 다르며 하와이 또는 미국 이주 일본인과 미국인과의 위험인자가 다른점으로 보아 유전적 소인을 간과할 수 없다.

△식사·음주습관, 내당능이 상 : 병형에 따라 양간상관이 있다.

3.다면량분석에 의한 뇌졸중발증의 위험인자 비교

1980년대 우리나라 12개 대학병원에 입원한자의 분석자료와 일본의 히사야마 연구 그리고 미국의 후래밍검연구 결과를 병형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뇌졸중

한국의 자료는 여자, 고혈압, 음주습관, 육체노동등이 위험인자였으며 일본은 남자, 확장기압, 수축기압 및 음주습관의 순

△뇌경색

한국은 60세이상의 고령, 고혈압, 도시생활, 당뇨병, 남자, 정신노동등의 순이었으며 일본은 고령, 확장기압, 남자, 심전도이상, 당뇨병, 수축기압의 순이고 미국은 수축기압, 고령, 흡연, 고지혈증, 좌심비대가 위험인자였다.

4.허혈성뇌졸중 ischemic stroke의 원인 질환

구미에서는 뇌경색이 뇌졸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래 : 건강인, 혈액응고능력증, 악성종양, 자간, 피임약등

5.뇌출혈의 원인질환
강압제의 발달과 고혈압관리의 성과로 구미의 뇌출혈빈도는 격감하여 현재는 뇌혈관질환의 8~15%에 머물고 있으며 일본도 30% 미만으로 감소경향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진단 특히 사망진단명에 문제가 있어 임상진단으로 약 40~50%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하 이들의 원인질환을 살펴본다.

△고혈압 - 죽상경화성 출혈 (80~90%)

고혈압은 죽상경화증의 강력한 위험인자이며 경동맥 Willis circle, 중뇌동맥 뇌기저동맥등 대혈관과 말초혈관 및 천통지 Penetrating arteries 등 소혈관에 모두 영향하여 혈관병변을 일으킴으로서 뇌출혈을 초래하며 지속된 고혈압은 미세동맥류를 만들어 출혈원인이 된다.

△동맥류(11%의 빈도로 거의 변동이 없다) : Berry or Saccular낭상, 방수상, 세균성, 혈관염성

△뇌혈관기형 : 동정맥기형 A-V malformation

△뇌종양내 출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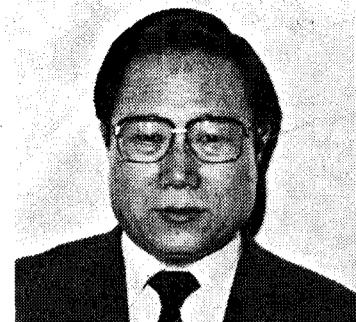
△전신성 출혈순인

△혈관병에 다른 출혈

△뇌내 정맥경색에 의한 출혈

6.동맥경화증과 뇌졸중

동맥경화증이 뇌병변의 위험인자가 되는 기전에는 △뇌혈관내강협착에 의한 뇌혈류감소 △혈전형성에 의한 2차적 색전 △혈관벽장애에 의한 동맥류형성 △신장동맥 경화에 의한 전



劉元相
<교수>
인제의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뇌주간동맥의 경화도와 관련이 있다.

7.고혈압과 뇌졸중

성인의 순환기질환 특히 뇌졸중이나 허혈성심질환의 위험인자로 고혈압의 큰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며 최근 고혈압의 효과적관리에 의하여 뇌졸중의 발생 내지 사망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이 국내외의 대규모 역학조사로 증명되고 있다. 즉 경증고혈압의 치료에 의하여도 뇌졸중의 발생을 39% 감소시켜 뇌졸중의 발증 인자로는 나이를 제외한다면 고혈압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고혈압은 혈관에 죽상경화, 미세동맥류, 섬유소양괴사 및 세동맥경화증을 일으키며 특히 뇌혈관에 대하여는 말초의 소

고혈압의 管理야말로 뇌졸증예방의 王道

신혈압에의 영향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동맥경화를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거론하려면 그 중증도와의 상관을 평가해야 한다. Gtora 4 Tejada등은 평점을 주어 atherosclerotic index를 마련하여 대동맥의 경화도는 고령자의 뇌출혈군이 비출혈군보다 크다고 하였으며 뇌저부동맥경화를 혈관내강협착도에 따른 Baker index로 평점하면 고혈압자는 정상인보다 뇌동맥경화도가 높다. 또 뇌혈관조영상의 협착도분석에 따르면 경화도가 진행됨에 따라 뇌졸중의

맺는말

이상 뇌혈관질환의 발증원인에 대하여 뇌출혈과 뇌경색 등 병형별로 고찰해 보았으나 고혈압은 전자에는 직접적으로 후자에는 죽상경화증을 통하여 작용함으로서 모든 뇌졸중의 원인 및 위험인자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따라서 고혈압관리야말로 뇌졸중예방의 왕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다.

한일약품

일본제약시장을 1년만에 석권한 성인병예방 치료제

메바로친

메바로친은 혈액의 흐름을 막아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지방)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신제품입니다.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는 동맥내벽에 생겨난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침착되어 소위 "플라크"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동맥내벽을 좁게 만들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자각 증상없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와 합병증

●뇌졸증(증후)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뇌동맥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줄고 뇌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과 산소공급이 방해를 받아 생겨나는 질환으로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심장마비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로 호흡곤란에 의한 통증및 쇼크사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협심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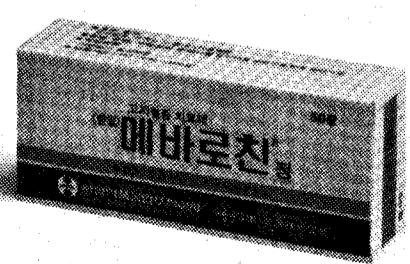
심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진 결과로 가슴 한가운데가 뚝하고 쪄는 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의 새로운 도전 "메바로친"

●메바로친은 89년 일본에서 개발된 최신의약품으로 월 70억엔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이상으로 인체내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설시킵니다.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장에서만 작용하여 타장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메바로친

표준소매가격 : 55,000원(50T)

본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본사 PM4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TEL:(02)464-0861 교환 584